

PEACE ROAD

09
Vol. 61 | 2021

평화의 길, 통일의 길 www.peaceroad.com



명사칼럼

이젠 북극항로 개척 적극 나서야

커버스토리

피스로드 2021 통일대장정
“한반도 통일” 복讖땅 보며 뜨겁게 외치다

포커스

영남권 한일해저터널추진위원회 구성
2021 피스로드 범시민 걷기대회 전국 확산
'신통일한국 평화포럼' 영상강연
힐 전 주한대사 “북 고립해선 아무것도 못얻어”

특별인터뷰 | 스테판 코스텔로

“한일터널 프로젝트 美도 적극 지지 할 것”

NEWS & ISSUE

부산 방문한 김태호·안상수 “한일터널 사업 지원할 것”





표지이야기

'2021 피스로드 통일대장정'은 올해도 14개국 40여명의 연합중주단이 한반도 남쪽 구간을 힘차게 종주했다. 폐가 약했던 러시아 여대생 베리니카 바쿨린스카야가 이화령 구간을 역주하는 모습과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던 일본의 피스로드 대장정, DMZ철조망에 종이학을 거는 모습 등을 표지로 다뤘다.

CONTENTS

- 03 명사칼럼**
이젠 북극항로 개척 적극 나서야
- 06 커버스토리 | 피스로드 2021 통일대장정**
"한반도 통일" 북녘땅 보며 뜨겁게 외치다
국회의원·단체장들 축하메시지
- 12 포커스**
영남권 한일해저터널
추진위원회 구성
2021 피스로드 범시민
걷기대회 전국 확산
문선명 총재 성화 9주년 기념
'신통일한국 평화포럼'
힐 전 주한대사 "북 고립해선 아무것도 못얻어"
- 16 창간 10주년 특별기획 | 한일해저터널 이렇게 본다**
과거보다는 미래를...지구촌 변영 큰 틀서 조망을
강대국 굴레벗고 평화·축복의 땅 가는 길
- 20 창간 10주년 연중기획 | 한국 해저터널을 말한다**
초고속교통물류시스템 구축 성장동력 창출해야
- 24 특별인터뷰**
스테판 코스텔로
美 조지워싱턴대학교 초빙교수
- 27 효정 증언**
어두운 북한에 참된 진리 전한 문선명 총재님
참가정 운동 통해 대한민국 기본질서 되살려
- 29 포토에세이**
천년의 역사를 품은 아드리아해의 보석
- 32 한일터널 선구자들**
니시보리 에자부로 일본 초대 남극월동대장
- 34 기고 | 김형석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펴야 한반도 평화 온다



- 37 평화네트워크**
유라시아큰길 정책연구원 '비전 발표회'
한·일 산업 획기적 발전...미래가치 집중연구를
항공노선보다 시간·비용 모든면서 경쟁력 앞서
- 42 지상중계**
"한일터널은 지구촌 평화번영 상징 기념물 될 것"
한반도 평화, 푸틴을 움직이면 답이 있다
- 50 현장체험 | 리멤버더히어로즈 2021 버추얼3**
- 52 잊혀진 용사들**
한국전 멕시코 참전용사 이야기
- 54 평화에세이 | '물의 시대'를 상징하는 여성**
- 56 남북문화의 창**
평양엔 유럽형 공동주택 주상복합 보편화
- 58 박성열 번역 일본판 <일한터널>**
터널 개통되면 동북아 4개국 경제 비약적 발전
- 60 대륙철도 25시**
시베리아 철도 현대화로 극동시장 통합 노력
- 61 평화역사의 현장**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 63 신간소개**
유라시아 신시대를 위한 한일터널
- 64 NEWS ISSUE**
부산 방문한 김태호·안상수 "한일터널 사업 지원할 것"
한일터널, 단행본 제작 위한 이사회 개최
국민연합 남북통일연구평서 자문교수단 워크숍 열어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9월 14일 국제지도자 콘퍼런스
- 66 여의도 편지**
도쿄올림픽 선수들 코로나 공포 세계인에 희망 주다



평화의 길, 통일의 길

PEACE ROAD

Vol.61 | 2021·09

발행일 2021년 9월 11일
 등록일 2010년 9월 3일
 등록번호 영등포, 바 00111
 인쇄처 광일인쇄기업사
 발행처 세계평화도로재단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4
 스카우트 빌딩 905호
 전화 02-3471-7696 팩스 3471-7690

이사장 토마스 월시
 고문 정태익
 발행인 송광석
 편집인 정성수
 취재 박현철 유진주
 정영호 정인호
 사진 시라이 구미꼬
 디자인 장인선

특별인터뷰 | 스테판 코스텔로 美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문제연구소 초빙교수



“한일터널 프로젝트 美도 적극 지지 할 것”

Stephen Costello

글 유진주 기자 | 사진 시라이 구미꼬 기자

스테판 코스텔로(66) 교수는 정치 분석가이다. 현재 그는 공공정책연구로 유명한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문제연구소 초빙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의정부시 소재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원이자 한국일보 영자판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칼럼을 13년째 써오고 있다. 지난 8월 21일 부

산 해운대에서 한일터널연구회가 주최한 ‘스테판 코스텔로 교수 초청 한일해저터널 간담회’에서 그를 만났다. 지난 4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한일해저터널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후 ‘한일해저터널 추진’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큰 파장을 불러왔고, 다시 한 번 부산의 여론이 큰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그가 바라보는 한일해저터널프로젝트의 전망에 대해 들어본다.

-이번 방한 목적은 무엇인가.

1990년 중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창립한 아·태재단(아시아·태평양 민주지도자회의, FDL-AP)과 인연을 맺은 후 한국의 민주당 인사들과 많은 접촉을 해왔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참모기구였던 아·태재단의 진보적 민주주의 성향은 당시 워싱턴 정가에 큰 관심을 일으켰고 저는 대단한 관심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갖고 30여 년간 한국을 다녀왔다. 횡수로 치면 50번은 넘을 것 같다. 현재는 조지워싱턴대 한국문제연구소 초빙교수로 있으면서 한반도 정세와 남북 협력에 대한 주제로 경기연구원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함께 하고 있다. 이 연구의 진척을 위해 정기적으로 한국방문을 하고 있다.

터널 건설되면 동북아지역 긴장 완화 볼보 듯

-한일해저터널 프로젝트는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후 언젠가 남과 북을 연결하고 한반도를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하는 큰 인프라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데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언론과 지인들로부터 한일터널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을 때 평화실현을 위한 주요 국제사회기반시설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비록 현재 한일 간의 냉담한 기류로 일본과 한국의 양 정부가 한일터널 프로젝트에 지지를 표하지 않고 있지만, 경제적·전략적 근거는 압도적이다. 게다가 유럽과 아시아에서 터널과 교량 건설 사업이 많은 발전을 가져와 기술적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다.

美 기반시설 확충자금 지원할 적합한 프로젝트

-왜 한일해저터널이 필요한지 이유를 설명해 달라.

한일터널 프로젝트는 한일 양국에 대단히 가치 있는 몇 가지 목적을 갖는다. 이는 두 나라가 역사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정치적·경제적 초점으로 전향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보여주는 막대한 혜택을 상정하면서 양국 지도자들이 자국에 얼마나 득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일터널 프로젝트로 한국의 기술공학과 기술 전문성을 입증하고 얼마나 유용한지 그 현대적 능력과 신기술개발까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한일터널이 가져올 가장 큰 혜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동북아 지역의 긴장완화일 것이다. 이는 결국 국방비 지출과 위협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이점이 아닐 수

없다. 긴장완화 문제로서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지역 군비통제협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동해안과 서해안에 이어 다목적 회랑으로 한일터널을 추가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 남북한 그리고 일본으로 오가는 화물과 사람들의 이동을 보다 쉽게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훨씬 증가할 것이다.

-한일터널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미국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지.

미국의 관심사는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협력해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해저터널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아시아에 더 나은 기반시설확충 자금'(Build Back Better Infrastructure Fund for Asia)을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한일터널 프로젝트는 미국이 자원과 자금을 지원할 적합처로 이해될 수 있다. 미국의 몇몇 관료는 남한 정부가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한반도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일터널 프로젝트는 동북아의 한국과 일본 양대 민주진영이 어떻게 서로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협력으로 북한을 더 가까이 끌어올 수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이다.

더불어 워싱턴 정가 사람들은 해묵은 '동북아 평화' 이론을 식상해한다. 보다 전략적 접근과 논리적 근거를 내세운 실질적 방안들이 나타나한다면 귀를 기울일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한미 관계를 설정해나가려고 한다. 그

것이 미국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이런 견해에서 한일터널 프로젝트는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동북아 평화전략접근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일터널을 추진하는 관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타당성 연구를 계속 도출해 내야 하며, 한일 양국 정부를 향한 대중의 의견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 정부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논리적이니 그렇게 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일터널 프로젝트는 정치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더 큰 전략적 이점을 볼 수 있으므로 얼마든지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다.

한국이 美의 한반도 접근방식 변화 이끌어야

-남북관계가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남북관계는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 한국 정부는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문제들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독자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선평화 후통일' 론을 주장했다. 동북아 평화는 남과 북이 평형적 선상에서 관계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을 위시한 중국·러시아의 동구권 공조와 남한을 위시한 미국과 일본 등의 서구권이 함께 동의하는 평화 구도가 설정 되어야 한다. 이 전략은 각각 비핵화, 경제개발, 전략적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아시아에 더 나은 기반시설확충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한일터널 프로젝트는 미국이 자원과 자금을 지원할 적합처로 이해될 수 있다... 한일터널 프로젝트는 동북아의 한국과 일본 양대 민주 진영이 어떻게 서로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협력으로 북한을 더 가까이 끌어올 수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이다.



韓·美·日 긴밀한 공조만이 동북아 평화만들어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는지.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북한의 새 협상 준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북한은 국제사회 참여를 위해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대북 제재 완화와 경제 협력은 비핵화와 북한의 한반도·일본 번영시대 통합을 위해 가장 좋은 수단이다.

-한반도는 70년 넘게 분단된 상태이나 통일은 요원하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핵심 해법 중 하나를 소개해 준다면.

긴장완화는 남북 상호 혜택을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 과제 중 하나이다. 새로운 협정은 긴장을 낮출 뿐만 아니라 군사비 지출을 재고할 것이다. 그 지출의 상당 부분은 남한과 북한 모두의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사용될 수 있다. 미

국이 한반도에 대한 접근방식을 바꾸는데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대미 전략은 비핵화와 개발, 군사 협력 등으로 향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위기가 또 한해를 넘기고 있다. 사회적, 국가적 손실이 크고 그 피로도가 높다. 코스텔로 교수님도 많이 불편 할 터인데 코로나에서 얻는 교훈이 있다면.

물론이다. 코로나 사태는 어떤 나라도 고립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도 빨리 백신을 맞아야 군사력 증강과 군비 경쟁의 '블랙홀'로 남지 않을 수 있다. 모든 국가가 외교에 코로나 백신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코로나가 말해 주고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조지워싱턴대에는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다. 그들에게 한국과 동북아 정세를 소개하는 데, 그때마다 눈빛이 충충해지고 흥미와 열정이 느껴진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는 합리적인 관계성의 발전이다. 자국의 이익만을 좇는 국수주의를 뛰어넘어 보다 큰 범위에서 상생(공생)하고자 하는 발로에서 시작한다. 나의 것을 주장할 때, 상대가 나의 어떤 점에 관심을 갖고 귀를 여는 지 집중해 보라. 거기에서 서로 상생이 가능한 주제가 도출된다. 저는 이것을 젊은이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여 받은 인상은.

한국 국민들이 COVID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스스로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가장 감명 깊었다. 설령 코로나가 급증하더라도 대중이 마스크 쓰기과 백신 접종 등 국가 방역 지침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높은 시민의식이 부럽다. 한국의 공공 인프라에 대한 오랜 투자도 인상적이다. 공공시설이 깨끗하고 현대적이라는 것은 그 공간을 모두가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큰 교훈이 된다. **김성근**